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요한계시록 20:12~13(성구 익히기) 마지막 심판 시에 모든 이들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10~15분)

판사가 쓰는 나무 망치를 보여주거나 칠판에 그린다. 학생들에게 그 구절이 그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2~13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사악하게 생활했던 이들에게 이 날이 어떠한 것인가?
- 의롭게 생활했던 이들에게는 어떠한 것인가?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게 다음 성구 단락을 하나씩 배정한다. **요한복음 5:22, 25~29; 열마서 5:15~16; 11:43~44; 교리와 성약 128:6~7.** 학생들에게 심판에 대해 그들이 배운 것을 토의하게 하고 반 전체가 그것을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심판의 날에 행복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권유한다.

요한계시록 22:12~17.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온 사람들만이 해의 영광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0~15분)

학생들에게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충실한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는 메시지로 그의 계시록을 마쳤다고 말해 준다.

칠판에 다음 인용문을 적되,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은 빈칸으로 남겨둔다.

“순종은 하늘의 첫 번째 율법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설교집, 16:247~48)

학생들에게 위 문장을 바르게 만드는 데 필요한 단어 하나를 제시해 주도록 권유한다. 학생들에게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경전에서 찾아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2~14절**을 읽게 하고 그들이 이 구절에서 하늘의 첫 번째 율법을 찾아낼 수 있는지 알아본다. 빈칸에 순종이라고 적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순종이 왜 하늘의 첫 번째 율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한 학생에게 **러셀 엠 넬슨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결혼 초기에 미네아폴리스에 살던 어느 날, 저와 제 자매는 남은 오후 시간을 두 살 된 우리 딸과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미네소타의 많은 아름다운 호수 중에 하나를 찾아가 작은 보트를 빌렸습니다. 호숫가로부터 멀리 배를 저어 나가, 잔잔한 호수 가운데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별안간 우리 어린 딸이 한 쪽 다리를 들어 배 밖으로 내밀면서 ‘아빠, 이제 배에서 내릴래’ 하고 소리쳤습니다.”

“황급히 우리는 아이를 붙잡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니다, 애야. 지금 내려서는 안돼. 우리는 배가 안전하게 우리를 호숫가로 데려다 줄 때까지는 배 안에 있어야 한단다.’ 오랜 설득 끝에 우리는 배에서 너무 일찍 내리는 것이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딸아이에게 납득시켰습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도착하기도 전에 어리석게도 배에서 내리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항상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제가 말씀드린 비유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처음에 주님과 함께 ‘배에 타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계속 그분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야 하기 전에 배에서 내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으로 들리워 질 것입니다.” (Conference Report, 1997년 4월, 96쪽;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70쪽)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다음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묻는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도착하기 원하시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 마련하신 “배”는 무엇인가?

•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배에서 나오고 싶은 유혹을 받는가?

• 순종은 어떻게 우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구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초대를 찾아보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읽는다. 학생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에게 올해 세미나리에서 배운 내용 중, 그들이 순종하고 “배안에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함으로써 수업을 끝맺는다.